

교회 목표

신앙인 예배
천국인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남도교회를발행처로 삼고 창간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장: 조신근

JLMTC 은혜중 마쳐 청소년들의 선교열기 후끈 260여명의 예비선교사 참가

지난 3월 1일 베다니홀에서 실시된 청소년선교훈련(JLMTC)은 200여명의 중고등부 학생들 및 60여명의 성도들이 참가하여 선교에 대한 뜨거운 관심 속에서 시종일관,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20여 중고등부 학생들의 참여는 준비한 선교위원회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단기선교에 대한 청소년들이 관심이 매우 뜨겁다는 사실을 짐작케 해 주었다.

이에 선교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충현의 차세대들이 진지한 선교훈련과 순전한 헌신을 통하여 세계선교의 주역들로 배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담임목사 동정

김성관 담임목사의 건강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다리의 상처가 깊어 걷거나 장시간 서있는 것이 힘든 형편이다. 이에 따라 김목사는 건강 회복의 기간동안 주일강단에만 서게될 예정이다. 김성관 목사의 건강회복 및 현재 투병중인 정성식 장로, 김한기 장로, 이형수 장로 등을 위한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지속되어야 하겠다.

제2차 성찬식 오늘 1-5부예배시

2000년도 제2차 성찬식이 오늘 1-5부 예배시에 행해진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과 연합되고 모든 성도들과 하나되도록 자신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다.

제1회 주간충현 신앙수기 공모

주간충현에서는 2000년도를 맞아 충현의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신앙수기를 공모하였다. 큰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큰 주제를 중심으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쓰셔도 좋고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를 거슬러올라가면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쓰셔도 좋습니다.

21세기에 우리들의 삶의 주제는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이런 신앙수기 공모를 통해 충현의 성도님들과 모든 가정들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도훈련원 개강

전도훈련원이 3월 8일(수) 오후 2시에 선교관 5층 국제회의실에서 개강예배를 드린다. 이미 각 교구별로 훈련생들을 추천받고 있는 중이나, 충현의 성도들 중 전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누구라도 신청하여 훈련받을 수 있다.

'찾아오신 예수님'

- 주제: 큰 주제-찾아오신 예수님
작은 주제
1)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마운 분
2) 우리 가정의 믿음의 뿌리 찾기
* 글의 제목은 임의대로 붙여도 됩니다
- 기간: 2000년 4월 2일까지
- 분량: 원고지 10-15매 또는 A4용지 1-2매
- 대상: 충현의 성도 누구나
- 시상: 1, 2, 3등 및 수 편의 가작을 선정하여 시상합니다
- 보낼 곳: 주간충현 편집실(선교관 303호)
사무국 총무(교육관 1층)
- 심사결과: 4월 23일자 주간충현에 발표합니다
- 자세한 문양: 구내전화 348번 주간충현 편집실로 하시면 됩니다.

지난 2월 23일자 기독교신문에는 우리교회관련 사설 및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려는 절단된 총과라고 보다는 편향된 왜곡보도였기에 교회에서는 이에대하여 기독교신문 및 충회에 해명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본교의 성도님들에도 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여 게재 합니다.

기독교신문 기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며 충현교회를 아끼시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여러 교회들 앞에 머슴살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23일자 기독교신문 사설 및 총회에대하여 실린 충현교회 관련 기사를 접하면서 저지기에 당황스러운 면이 있고, 또한 한국교회 앞에 세워진 저희교회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부탁드린 소원이 있어 이렇게 지면을 빌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 교회차 분열되어 있다는 보도에 관하여

기독교신문에 실린 충현교회관련 보도는 내용의 대부분이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하지 못한 매우 편향된 시각에 치우쳐 있다는 점에 먼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려는 기독교인들이 세속적 저널리즘을 좇아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느 교회라도 성도간의 의견의 차이는 있게 마련입니다. 저희교회에도 그 정도의 의견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저희교회도 이를 극복하기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세력화한 다분한 양극화시위 부각시킨 것은 그 저자의 의식상도 또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기독교신문 보도가 나가기 직전까지 저희교회 지도부는 교회를 위해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저희교회는 교회문제를 성경적

관점 보다는 세속적,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분열되어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한국교회를 계속해서 섬겨갈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신문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충현교회 관련 기사를 정당하게 다루고자 했다면, 오히려 김성관 위임목사 테러사건이라는 것을 수 없는 폭력사태를 심도있게 다루어야 했을 것입니다.

2. 김성관 목사 및 그의 목회방침과 관하여

기독교신문 사실은 충현교회 관련기사를 부각시키려는 의욕에 치우쳐서 김성관 목사의 의욕과잉과 태생적 한계(2)라는 매우 어색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의욕과잉이라는 표현에 슬픔을 표합니다. 모든 목회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서 목회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의욕을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적어도 김성관 목사는 자기의 명분을 세우기위한 '형식적 부흥'이나 대외적 홍보를 위한 '정치적 연대'에 의욕을 품지는 않았습다. 그는 한국교회 안에서 영성적 회복 신드롬과 부그러운 정치적 연대가 진정한 복음의 회복 신조를 대체하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복음능력의 회복을 목회적 의욕으로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목회적 표현들은 이를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었습니다. 충현교회가 복음중심적 설교를 강조하고 일련의 새로운 선교정책을 펼친 것이 이러한 일련에서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충현교회가 장기 거주 선교사 후원을 일시에 중단했다는 기독교신문의 보도는 매우 유감스럽게도 왜곡된 내용입니다. 저희교회는 미전도지역 및 현지인 사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미 현지에서 당회를 구성하고 자립교회 당회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독립시킨다는 측면에서 3인의 선교사를 해촉한 것일 뿐, 나머지 저지 선교사들은 여전히 아름답게 동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7천명 단기선교사 파송이라는 것은 충현교회 선전의 장기적 비전을 표현한 것이지만 이를 위해 파도하게 무리수를 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현재 충현교회는 기존의 장기선교사들과 매년 여름과 가을에 진

행되는 10여개 팀의 단기선교단의 동역, 외국인 근로자 사역, 우리교단 총회세계선교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LMTC를 통하여 다수의 평신도 선교사들을 배출하고 파송하는 등 매우 활발하게 선교사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태생적 한계'라는 어색한 표현에 대하여서도 슬픔을 표합니다. 위임목사를 정하는 문제는 그가 전하나 친자가 아니냐와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해교회에 적합한 목회자라는 판단된 것일 뿐입니다. 적어도 충현교회는 이를 위해 수년간 기도해왔고, 적합한 절차를 따라 공동의회를 통해 김성관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였었습니다. 따라서, 편향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입장이라면 충현교회를 섬기게된 신임 위임목사의 목회적 관점과 새로운 사역들을 좀 더 객관적인 측면에서 소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3. 충현교회의 현 상황과 관하여

충현교회는 최근에 일어난 담임목사 테러사건으로 인해 심한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회지도자들에게 대상을 저질러진 것을 수 없는 폭력사태로 인해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기독교신문의 편향된 보도를 접해야 하는 것은 실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충현교회를 생각하는 모든 교회와 충현교회가 21세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한국교회에 복음의 능력과 진정한 영적 부흥을 증거하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00. 3.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자녀 주일 설교



김창인 목사

성도의 자라는

(고전 1:18-31)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는 자는 주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함이니라”

1. 세상의 자랑

사람마다 모두 같지는 않으나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몸이 튼튼해 하면서 건강을 자랑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아 하면서 자기의 머리가 좋은 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운동을 잘해 하면서 자랑합니다. 모든 자랑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고 자기가 낫다고 좋았다고 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좋은 자랑도 많습니니다. 그러나 나쁜 자랑도 없지 않습니다. 좋은 자랑을 할 만한 것들이 있는 분은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자랑이. 몸이 건강하고 지혜로우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어떤 자랑을 막론하고, 권세나 돈이나 건강이나 어떤 자랑을 막론하고 열기가 됩니니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고, 머리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비록 자랑할 것이 생겼다고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나와 얼마나 오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권세가 꺾여지는 날도 있고 돈이 없어져 부도수표를 끊는 날도 있고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하는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좋은 것이 나와 함께 오랫동안 있어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은 휘발휘발 지나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자랑감을 오히려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건강한 몸을, 좋은 머리를, 돈을 신한 일에 오히려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랑감으로 인해 부작용이 생기는 때도 많습니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 자랑감이 있는 분들에게 자랑 무서운 부작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아니 과파입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 하는 교만한 마음을 생기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점점 희박합니다. 그리고 욕심이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물라 주니다...’라는 원망도 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자라면서 자랑감이 점점 커지는데 조금 잘한 것을 많이 잘한 것처럼 거짓말을 쉬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랑심이 커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은 못되고 욕이 되고 교회는 은혜는 못되고 손해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전도도 안되고 오히려 전도의 길을 막고 자기 자신은 괴롭습니니다. 우물거리는 전도도 마음에 고풍이 옵니다. 이 괴로움이 점점 심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교만한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나의 나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겸손해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을 자랑할 놓치지 말고 신한 일에 사용합니다. 좋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기회를 놓치면 필요 없어지는 것이 기회라고 믿고 신한 일에 협참합니다. 그리고 땅 위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때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을 동정해 줍시다. 업신여기지 말고 불쌍해 줍시다.

그런데 세상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나쁜사부터 장애인까지 욕심이 없는 자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서 명절도 쇠지 못하고 울어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자를 시기하지 말고, 땅 위의 자랑할 것이 없으면 돈을 위해 쫓아다니지 말고, 땅 위의 자랑할 것 있어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자랑할 것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충현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을 주시나

그런데 말은 쉬운데 실재가 문제입니다. 있을 때에 바로 살겠다 결심하고 없을 때에도 낙심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으나 내 힘은 약합니다. 그래서 교만이 쑥 들어오고 그래서 욕심이 쑥 들어오고 그래서 부작용에 끌려 병들기가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예를 쓰고 수양을 해도 사람입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개신 후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마음에, 말에 그리고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시면 교만이 다 꺾여져 부서지고 겸손해지며 원망도 낙심도 사라집니다.

“나뵈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30절)

예수님이 오시면 지혜를 주십니다. 인간적인 지식은 제대로 못 배웠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쏠이다. 내 영성이 아무리 꽃만 것처럼 화려해도 잠시 후면 떨어집니다. 이것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알지 못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얼마누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려 땅에까지 찾아와 주신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 내 마음 속에 오시니 성부 하나님을 압니다. 성자 예수님을 압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압니다. 지혜가 생기니 악을 미워합니다. 선을 사랑합니다.

의로워집니다. 지혜가 생기니 내가 범한 죄를 우물무릎물 거지않 안하고 회개합니다. 용서받습니다. 의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 속에 오시니 지혜가 생겼습니다. 미련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자랑감으로 마음에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지혜가 생기니 분별하여 버릴 것을 버립니다. 그리하여 ‘내 힘은 약한데 하나님께서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유혹을 끊어 버릴 때에 의로워집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할 받아서 주 앞에 올라고 인정을 받게 되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구원해줍니다. 거룩하라는 말은 구원된 생활을 산다는 말입니다. 죄악에 물든 친구를 끌어내리고 구별하게 됩니다. 술을 안마십니다. 죄악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을 살도록 한 길을 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마음 속에 모시면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데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함과 구원함을 얻은 자의 기쁨이 생깁니다.

이렇게 충현의 모든 식구들은 세상 자랑하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로 쓰고 세상 자랑감 없으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 마음 다 가는 그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을 밝게 빛다가 주께서 문을 여시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

예수님을 자랑하는 방법은 셋째로 믿을입니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특정한 권세자를 믿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 예수 믿주면 큰 권능 받겠네” 믿습니니다? 세상은 험하니

다. 사람은 믿을 것이 못됩니다. 친구는 의논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생명을 맡겨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부도님께 베를어 주신 사람이 고마우니 효도는 할지 언정 부모님께 내 생명을 완전히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너도나도 모두 약합니다. 똑같이 어리석습니니다. 이렇게 믿을 분은 예수님뿐입니다. 확인하는 것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확실해지면 전도를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믿고 만 것 믿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누설임을 믿을 때에 저 생명도 구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가 옵니다. 우리 충현교회의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둘째 방법은 사람의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이 제일 귀합니다. 이웃이 내게 딱 한 그릇 가져오면 나도 딱 한 그릇 보냅니다. 이렇게 하였으니 물질적으로 이익이 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생깁니다.

사람의 순서가 정렬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부터 사랑해야 합니까? 만민의 근원이시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부터,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아주신 예수님부터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부터 사랑할 마음을 가지면 죄악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께 영광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이 생기면, 사람이 없어지면 큰일 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우리 충현의 성도들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여 기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충현 제단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부터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다가 실수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얻은 이익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천 배, 만 배 큰 복인 줄을 잊지 맙시다. 나를 사랑하는 게 나쁘지는 않으나 나를 사랑하다 하나님 팔아먹으면 큰일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두 나쁘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을 탐하는 마음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무서운 죄에 빠집니다. 가뭄 유다는 돈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니다. 그때 세상에 지니 않았던 것보다 못한 불행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니다.

우리 충현 제단의 모든 식구들은 예수님부터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믿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지 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4.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날이 가까이 온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피를 쏟아 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개인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버려 주실 줄 믿습니니다. “그 날을 늘 기다리고 내 등을 밝게 빛다가 주께서 문을 여시면 이 영광 들어갑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도망가는 이 한 분도 없이 할렐루야 부르면서 마중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자랑감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



김성곤 목사

고통받는 자를 위한 복음

(출 6:1-8)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되리니”

영성한 자 거역한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부터 불러 애굽으로 보내시며 이스라엘 자손들과 바로 왕에게 전할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애굽인들이 부당한 고통스런 노역의 집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는 “내 백성을 보내라”는 간담하고도 분명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고 모세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반면,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에 거역하여 하나님께 대항한 결과 여호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에 굴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맞았습니다.

고통의 때 은혜의 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돌아보십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갖과 자비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고 그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모세와의 첫 대면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왕의 명령에 따라 스스로 절을 구하여 하리니도 베풀생산은 전과 동일하게 해하였고 할당할 제수지 못할 경우 심장들로부터 격할을 당하여 하는 데 큰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에 대한 요구가 더 증한 노동으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히브리인들에 더 많은 고통을 가하여 더 견고해질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는 절고의 순간에 더욱 풍성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고통을 받기를 받고 매를 따라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4:16).

여러분이 겪으시는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난도 중요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모든 문제를 스스로 다루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약속이 닦여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겪는 고통의 문제를 보살피십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도 구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슬픔과 담배, 성적인 유혹과 여러분의 기절과 이기심과 두려움입니까?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재능을 속박하고 여러분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킵니다. 여러분의 숨통을 죄고 여러분으로부터 모든 선한 것을 탈취해 갑니다. 아담에게서 난 모든 자마다 이러한 속박 아래서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이 여러분을 이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와 하나님만이 있습니다. 죄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창조물을 쉽게 포기하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구원을 계획하셨습니까?(창3:15). 하나님의 온신치 아래로 들어가면 우리를 구속하려는 죄의 권세와 영향은 무기력해집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유를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유를 돌보십니다.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이 이스라엘을 자유케 했듯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아니요 금같이 행어질 것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록 없고 점 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벧전1:18-20).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구원을 위한 그밖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세상입니까? 혹은 사단입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8:31-32).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는 자유를 위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요36). 아멘!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는 한 여러분은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주는 영이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3:17).

우리가 누릴 교제를 돌아보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릴 진정한 교제를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약속하셨습니까?(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를 좇는 것 뿐입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는 사람들은 그 길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영광의 아버지가 되게 하도록 향유할 수 있는 인도자이십니다. 독생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전체는 우리의 영원한 교제를 열망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중심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돌아보심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셨고(창13:15, 17:8).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진실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영생을 약속하셨습니까?(요3:16).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기쁨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고 잡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1:4). 우리에게 대결할 일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돌아보십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행벌을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까? 바로왕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절하고 저항하십니까? 결국에는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꿇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마음을 기울여 결손치 않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을 것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강제로 심판당하여 굴복하시겠습니까?

굴복의 비밀

이 ‘굴복’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만 되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가 죽습니다. 얼마나 자주 우리는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옮겨 행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하나님의 영향에서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 애쓰면서도 오히려 비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활을 다스리고자 하면서도 오히려 실패하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믿고자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사랑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함께 사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대로 말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자신의 사랑을 행하시는 것을 말함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간단하고 쉬운 길이나 스스로 자신을 불고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길입니다.

고통받는 자를 위한 복음

고통받는 자를 위한 복음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식이 없다면 인생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유일한 궁극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내면적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복음과 더불어서만 우리는 평화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으로 살아가 수 있습니다. 그를 믿는 완전한 믿음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스스로 하나님 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되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어린아이가 그를 신뢰하십시오. 그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모든 환심을 내려놓고 그의 은혜와 자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세우게 하십시오. 아멘! M

베트남 사역보고 복음전도의 황금어장

민병용(선교전도사)

어울 선교사역이 절실합니다. 완전 개방되어 급속한 발전이 이뤄지고 나면 베트남 사람들의 관심은 육신의 쾌락에 더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체적으로 현재 총 273개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며 호치민에는 약 40여개의 공인교회와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는 목회자가 부족하여 폐쇄되는 교회가 생기기 때문에, 막상 나랑에서 폐쇄된 옛 신학교의 남은 건물과 그 기숙사가 여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우리 대원들의 마음은 안타까웠고 신학교가 속히 재건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남부에 비해 북부는 과거 공산통치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교회도 15개처소에서만 예배가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현재 베트남은 과거의 적이라 할지라도 미래지향적인 자세에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외교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듯하면서도 실상 내부적으로는 감시 또한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역에서 장의성과 신중함이 잘 어우러져야 할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온 도시 전체가 물질적 향상을 위해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마음아프게 한 것은 각 가정과 가계, 동네 요목마라 설치되어 베트남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반타라고 하는 우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복음 기현하는 한 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기독교물고와 사미니즘이 병합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저급이아말로 복음으로 베트남의 영혼을 올바른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끌

우리대원들은 선교 지식 훈련으로 베트남이 매우 적극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급변하는 경제발전과 전통의 현대의 혼합,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혼합으로, 무속신앙과 기독교, 프랑크통치시기에 기반을 확립한 천주교, 그리고 박해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기독교 등 각방면에서 여러 요소가 혼합되는 상황에서 복음전도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한국에서 외선부사역을 통해 베트남이 관심되도록 기도하며 베트남 형제들을 적극 전도할 계획을 마음 속에 다져보았습니다.

충현전도대의 영혼사랑

이 홍 성 (목사, 전도위원회의 지도)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충현교회의 성도가 되면 어느 사이에 이러한 표어가 바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알게 된다. 이것은 남의 것을 아님이다. 바로 나를 함의 한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다. (주찬준)을 보더라도, 예배 순서를 보아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의 대 표기도에 함께 마음 을 모아 동참해보면 어느 사이에 이것들 이 나의 결에 있는 것이 된다.



민족 복음화! 이르기까지 열정 이 충현교회에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영식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는 충현교회 전도 위원회, 오늘날은 그 신에서 있는 충현전 도대를 말하고 싶습니다. 오랜 역사 속 의 '70년전도대'를 잊는 오늘날의 충현전 도대는 누가 시켜서 전도하는 것이 아 니합니다. 이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건드릴 수 없는 믿음 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되면 어김없이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됩니다. 성령께서 나가서 전파하고 하시는 담대한 마음이 생기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 하며, 찬송하며, 말씀보다 먼저 초대교 회, 순종적 성령사건이 임하기를 기다 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오직 주님 에게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되어 영혼구원하는 일을 함께 섬기게 되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충현 전도대의 김OO, 장OO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 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이 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의 길 을 가는 사람들을 우연히 알게 되어 만났을 때, 그리고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무한히 빛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들속에서 거룩하게 불타오르는 것을 느낄 때, 목회자는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준비된 그들을 기꺼이 당신의 택한 영혼들 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지학철역에서, 공원에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질병으로 연약해져서 병원에서 들어와 마음이 심히 곤고해 있을 때, 당신의 일꾼들을 하나님 의 천사로 만났을 때 영혼에게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충현전도대원의 가슴 속에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들이 비밀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는 이보다도 더,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그 후에 어떻게 피어있는지에 대해서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기쁨으로 맡겨드릴 수 있는 수천 만의 영혼으로 식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에도 충현전도대를 통한 믿음의 역사에 동참할 일꾼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성령께서 예비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충현교회에 가득하게 하소서!

나를 변화시키는 세·꿈·이

황수미(청년부, 기동기)

라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꾀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해 마음아파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소식을 교환하고 편지로 격려하는 일이 선교사님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나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님을, 동역자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사역임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가되어 식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이제는 생활의 한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했구나' 하는 뿌듯함이 있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저를 이런 모습으로 변화시킨 모임은 바로 '세 꿈 이'라는 모임입니다. 세 꿈 이란 '세계 선교를 꿈꾸는 젊은이'의 약자로 청년들과 학생들이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메추라기마을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를 드리는 모임입니다. '96년도 인도네시아에 단기선교를 다녀왔던 4명의 청년-대학지체와, 리브루립 선교훈련을 다녀온 2명의 대학부 지체가 각각 기도 모임을 갖다가 서로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꿈 이라는 이름과 같은 지향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꾸준히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한다. 둘째, 우리는 올바른 선교사역을 위해 기본적인 신앙인격을 갖추었다. 셋째, 우리는 평생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선교사역에 참여한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들을 알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직접 세움이 모임에서 만나보는 경험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게 되고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의 소식들이 들어 올 때는 기쁘고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함을 맛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 후에는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청년과 대학생들이 모임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인내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선교사에게 중요한 부분이 공동체 안에서의 섬김, 하나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된지 불문한 지체는 선교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선교훈련이 필요한 지체는 선교사로 훈련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갖게 됩니다. 세움이 모임으로 함께 기도했던 10여명의 지체들이 단 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받아 현재 수단, 수리남 등의 선교지에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일은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현재 세움이는 15명 정도의 수수가 모이고 있습니다. 세움이는 매우 단순하고 소박한 선교를 위한 중보 기도 모임입니다. 모임의 진행을 위해, 책임자들을 위해, 수시로 들려오는 선교상황을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도를 구하지 않으면 안되는 모임입니다.

세움이는 '너희도 산 돌같이 성령의 겹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골 2:5)는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와 중보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모임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 값을 치르고 훈련되고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장이고 꾸준히 참석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볼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모임입니다. 가끔 세움이를 거쳐간 지체들이 생각나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 현장에서 뛰는 지체들을 위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기쁨 무엇들을 하고 계신가요?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일주일에 2시간 정도의 시간을 내는 값은 치파라하지 않을까요?



저에게는 사랑하고 아끼는 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주님을 일지 못하는 다른 나

신앙간증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위철홍 (새가족부)

할렐루야! 나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시켜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특정 종교는 가졌던 적이 없었지만 나름대로 인간답게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리스도가 없었던 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존재였는지 부끄럽기만 합니다. 제가 교회에 가면 기억은 어릴수록 성탄절에 쫓겨나고 군복무시절에 종교활동으로 몇차례 간 적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삶이 지칠 때마다 종교를 하나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때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 크리스천인 아내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정신세계, 행동 하나하나를 나의 삶과 비교해 보니 그 모습은 너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은 내 영혼을 뒤흔든 계기가 되어 나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아! 이제 나도 예수그리스도를 주주로 모시고 참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과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상의하여 아내가 참석하는 중헌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성경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잘 되지 않아 따분하고 말쑥일만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곁에 있는 아내와 새가족부 담임 집사님이 용기와 자신감을 주어 계속적인 새가족부의 출석을 권면하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도 많이 되고 때로는 나 자신을 위한 말씀으로 화답합니다. 그런 내 마음이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삶



로 바뀌어 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습관과 행동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매일 아침 가정예배를 통하여 드리는 아내의 기도는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이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 속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감당할 이 무늬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중헌교회의 새가족부를 통하여 나의 신앙의 기초를 마련해 주시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영적으로 훌륭하게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쏟아주시는 담임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척 개종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박대근 성도님께서는 99년 1월 1일부터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한 던중 우리교회 이진규집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순복하여 그때부터 성실하게 나오게 되었지만 처음에는 등록하지 않은 채 예배에만 참석하셨다. 본래 천주교부속학교를 다닐 때 영세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학교 졸업 후 천주교회를 계속 다니지는 않았지만 신앙을 함으로써 구원받은다는 교리를 실천하고자 장재복직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환경보존운동에 앞장서는 등 좋은 일을 많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 오셨다.

전도반이 교회에 오긴 했으나 기존의 생각을 침착히 바꿀 수 없었다. 지난 7개월동안 주일성수하며 예배드리다 보니 어느덧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기 위해 개종의 결심을 하고 등록하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신앙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거듭난 이후 교회생활에 기쁨과 자인하는 믿음이 일어나고 영혼구원에 앞장서기 위해 경찰전도회에 등록하셨다. 그리고 장년부와 구교모임에 결석 한 번 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기에 전심을 바치다.

구원의 기쁨을 혼자 간직할 수 없어 전도하기 시작한 지난해 열매 맺은 3명의 결신자가 우리 교회 등록신자가 되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시는 박대근 성도님께서는 2000년도 역시 "전도의 해"로 목표를 설정하고 날마다 만나는 모든 고객들에게 친절과 정성을 다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우리교회 2000년도 첫 번째로 잘 준비된 성도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값없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을 흑암에서는 영혼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 믿음 또한 놀라운 신주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김석진 기자)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이복례' 성도를 소개합니다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큰아들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서울에 올라오니 며느리가 발보종으로 가출하고, 손자손녀 남매는 대학을 중퇴하고, 집안이 엉망진창이 아들 집안을 돌보느라고 서울에 눌러 앉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병수발하느라고 지치고 힘들어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가 전도하는 이도 없이 곤고한 인생길에 감당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기려는 발걸음을 주께서 굴뚝이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상한 영혼의 치유와 삶에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있기를 ...

'김재돈, 문경식' 성도를 소개합니다



김재돈 형제(사진 왼쪽)는 직장상장의 전도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족부에서 1월부터 영접받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생활도 날마다 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기도 합니다. 문경식 형제(사진 오른쪽)는 김재돈 형제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전도를 통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하여 외보고 싶어서 처음 나왔습니다. 형제의 집안과 부모형제 모두 불교를 믿는답니다. 두 분 모두 예수님을 삶속에 인격적으로 만나 예비된 풍성한 삶을 체험하시기를. (한숙정(새가족부 통신)



처음 교회에 나오시면 뭐가든지 모르시겠지요? 당당한 일입니다. 교육관이 어딘지, 전교관이 어딘지, 아멘들은 또 어디로, 매주라기들은 어디 있는지 물론 처음 나오신 분은 모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한번 안내를 받아 쪽 돌리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것은 모두 전도하면서 배우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고 예수님은 누구며 성령은 또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많지요.

초등학교1학년때 들어가 어린이에게 구구단을 암송하라 하면 억지로 암송은 할지 몰라도 그 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받아들이면서 자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니그네일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노래가 있지요. 이런 창조와 역사의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는 그 근본을 보았을 때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 첫째로 우리의 공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등록할 때에 소개받은 새가족부입니다. 6개월만 꾸준히 다녔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신지, 믿음이 무엇이며 누구를 재민인지 하여 교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정말 천국과 지옥을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공금증이 풀리게 됩니다.

지옥 ← → 천국, '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이 출발점에서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가느냐? 하는 데 따라 종착역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출발점에서 천국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이 있든 절대 방향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대선 은목회보사)



신문을 보라, 이 사회는 여성들의 '인드라'를 여실히 직시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페미니즘, 이러한 단어를 사용 하여 여권에 온갖 부정을 가하는 따위의 잔인한 사고는 적과 악의에 대항해 온전한 세계관을 구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500만 여성의 할 일' 기사에 발췌함, 대통령서 CEO까지 핵심직 위로 떠올라, e-비즈니스는 여성에 맡겨라, (23일자 조선일보) - 이 경우 여대생 장학금 늘린다, 여(여)가 8명 '최다' 두번째 남대생 장학금도... (22, 27일자 조선일보) 세상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과 역량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

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에 있어서, 특히 보수파에 있어서 여성도들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활용은 아직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제 더 이상 남녀의 사회적, 문화적 역할론자의 성경적 구분 없이 이러한 방식의 틀이 아니라 시대의 필요에 대응하여 사역을 이루기 위한 것이 지당한 현실인 것이다. 다행히도 기독교계의 이인식 선생과 애도사 기독교 여성의 '세상 바꾸기'는 분명한 조도(調度)를 발하고 있다. (정대선 은목회보사)

'10일 대천한 이화여자대 장 원(85기 기독교학과) 교수의 무소유' 월급은 어려운 제자 월, 장원비 400만원 남다, (25일자 조선일보) - 여성들 깨어 자각 위해 기도한다. 내일 3일 지구촌교회 여성 세계 기도회 열려, (25일자 국민일보)

사회는 이미 남자들의 너무나도 비뚤게 만들어 놓았다. 남자들에게 지워진 가정으로서의 역할은 주일성수 조차도 바깥계 만들고 있지 않은 것이요 이제 교회 사역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여성도들의 역량들에 대한 지대한 배려와 존경이 대우해야, 또한 남자들의 헌신도 이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대선 은목회보사)

내 입의 찬송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이 정 협 (집사, 영리교목부)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땅 위의 험한 길'을 나가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오탁과 편견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지켜내지 못할 때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때에도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날 수 있는 것은 내속에 '깊이 묵히인 보배' 때문이다.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늘의 축복'으로 그 누구도 캐내지 못할 보배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세임을 입고 '내 영혼을 덮는 그 사랑의 물결'로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것이다. 내가족과 친구들, 이웃들 또 두 다 베풀을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권하고 기도한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 다 하는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송가 469장은 내용이나 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잘 나타냈다. 작사자 코넬은 19세기 미국의 진도자였다고 하는 사실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1889년 가을이었다. 감리교 캠프 집회에 그가 참가하였는데 캠프 안에 앉아 깊은 명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참 평화를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외에는 참 평화가 있을 수 없다고 느꼈다. 그는 명상한 내용을 종이에 옮겨 놓았는데 캠프 밖으로 나간 때 그 종이쪽지를 땅에 떨어 버렸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시를 쓴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었다. 얼마 후 그곳에서 캠프 집회를 인도하던 조지 쿠퍼가 캠프로 들어가다가 이 종이쪽지를 주웠는데 내용을 보니 너무나 훌륭했다. 즉시 그는 이 시를 찬송가서 사용하기 위하여 운율을 구성한 후 오르간 있는 데로 가서 곡을 붙였다.

따뜻한 이야기-3교구

3교구 에스도·루디아 전도회 회원들은
매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남사랑 선교회를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 대어섯명의 여전도회원들은 쌀과 과일, 과자를 가지고
얼마전 그들이 들기로 한 재물원에 도착한다. 차가 마당에 멈춰서자 어디에
산가 들려오는 ‘와~와~’ 함성소리.

건물 창안에서 손꼽을 반기는 얼굴들이 보인다. 이내 몇몇 아이들이 뛰
어 나와서 맞아준다. 여자아이 하나가 성도의 팔짱을 꼬옥 끼며 “집사님, 우
리 저쪽으로 산책가요, 네? 산책 갔다 요요”라며 조르조르다가는 먹은 것이 차려
진 상을 보자 그만 뺨금 한 악소를 짓는다.

이 정신지체 아이의 급작스런 행동에 당혹스럽기도 하고 또 귀찮다는 느
낌이 들었다가는, 저 나이도래의 평범한 아이들이라던 오히려 부모와 산
책 동행에 인색할텐데 낯선 사립민간도 손잡고 함께 거닐자며 먼저 청할만
금 인정이 그러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만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
진다.

인근 중고등학교의 사교동지들도 봉사명령을 받고 이곳에 오곤 한다. 처
음엔 봉사도 하는 등 마는 등, 말 한마디가 없다가도 봉사시간이 끝나 헤어지
는 날이면 재할한 아이들과 돌아오고 한참을 울다가 돌아간다. 더 이상 문제
아들이 아니다.

아이들의 천진무구함이 어느 명사의 설득보다도 더 큰 감화력을
발휘하는 것 이리라.

인간도 거의 없는 들만에 외로이 동지든 곳, 사소한 움직임에도 대
화도 힘겨운 연약한 사람들도 대대 이들 어디에서 이러한 힘이 나
오는 것일까, 도움을 준다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무엇인가를 주고 있다. 깊은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해협엔 기자)

D중학교에서 성경공부를 인도한 후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

김 성 경 (전도사, 중등2부 부지)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신나는 일이다.
일 그런 기회가 중고등학교에서 주어져서 그 시간동안 잘 가르칠 수 있다면 정말
그 진도효과가 클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기
회가 그렇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막상 반에 들어가 아이들을 대면하자면
실제로 만 전체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

기회가 생겨서 대장중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과목 교사로 봉사를 하게 되
었다. 나름대로 알차게 그 시간을 매워 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 부딪혀 보았지만 곧
학급의 분위기가 상당히 장애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았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업태도들을 요즘 학생들이 보이는 것이다. 수업시간동안 떠드는 것은 물론이고 돌
아다니는 아이, 장난치는 아이들이 태반이다. 선생님이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듣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격적인 대화는 통하지 않는다. 정말 요즘 중고등학교의 실태가
이 정도구나 하고 생각하게 만든다. 더군다나 학생들은 성경 시간을 마치 교과목의
하나로만 다루어 버린다. 그래서 성경과목 교사들을 무시하기 일쑤이다. 나의 작은
경험과 능력은 아무래도 그러한 아이들을 이끌어나가는 데 역부족이라는 것을 느끼며
솔직히 그 시간이 무척 힘들어지고 꺼려지기도 한 것이 사실이었으며 그와 함께 어
려 가지 생각들이 들기는 했지만, 그 학습이 방법과 기회가 이렇고 저렇고를 떠나서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한가지는 지금 중학교교사에 열심히 나와 신앙 안에서 생활
하고 있는 우리 종교생 아이들이 바로 천사단다는 사실이다.

현재 내에게는 중학교에서의 성경시간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제의를 하거나 할
지식이나 자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영동회에도(?) 학교에서의 경험은 오히려
교회 아이들을 향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아이들' 이 참 감
사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외부의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족이 할 지향점이
라면,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이미 품고 있는 아이들을 감사와
사랑으로 더욱 끌어안아 주어 말씀과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
다.

경로심방을 마치며

사랑을 안고, 그리고 소망을 안고

김 인 식 (목사, 15교구)

중현교회와 새해 들어 가장 먼저 실

시하는 심방이 '경로심방'입니다.
경로심방은 연로하신 분들(75세 이상)
을 찾아 뵙고 새해 인사를 드리고 하나
님께서 허락하신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
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영

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아가도록 격려하고 권면

하는 심방입니다. 새년
인들이 가장 먼저 시

작된 심방도 경로
심방인데, 올해 경

로심방은 제게 있
어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갖게 해주
었습니다. 물론 한

분 한분 다 귀중한
분들이지만, 제게 있

어서 이런 경로 심방에
있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난해 가을에 우
리 교구로 이사해 오신 분이신데, 이미

중환 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하고 계
신 상태였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것

도 그가 입원해 계시던 병실에서 있습
니다.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어른의

연세가 80이었는데, 아직도 자신의 의
에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중현교회에

출석한 지 20여년이 되었지만, 자신은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

도 없이 선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열

심히 살았다고, 자신의 삶을 강변 할 때,
심방자의 주님을 바라보고 설교했던
목사의 마음은 매우 서글펐습니다. 그
러나 해가 바뀌고 밤마다 찾아오는 고
통으로 인해 자신의 구원에 대해 더 깊
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반

복회는 심방을 통해 계속 그
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

도의 사랑을 전했습
니다. 그리고 이젠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
입니다. 마지막

으로 그를 심방
한 것이 지난번

경로심방이었습니
다. 그러나 밤새 고

통으로 신음하다가 막
잠들었기 때문에 깨울 수

가 없었습니다. 간병인을 통해
서 그에게 들려주려 말했(병원4:12)과 찬

송(460)을 읽어 주고 들어왔습니다. 다
시 한번 통화하고 싶어서 전화했을 때

그는 전화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약해
져 있었습니니다. 지난 토요일 영원한 소

망을 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
니다. 지금 저의 가슴 속 깊이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하늘나라의 소
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신 그분의 마지막

막 모습입니다.



지체들 소식

에바다부

겨울수련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새해 2000년도 맞이하여 지난 2월 25, 26일 이틀 간 에바다부 겨울수련회가 교육관 유아부실에서 있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사도 바울의 복음전도의 말씀들을 통해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찬양과 율동, 조별 성경탐험, 복음율림, 조별성경발표 등의 모든 그림을 통해 하나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성극발표회는 전도를 주제로 전도의 필요성, 바울의 전도 모습, 전도방법들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둘째날, 글없는 그림책을 통해 직접 전도하는 법을 연습해 보기도 했다. 또한 선교비디오를 통해 선교비전을 가지고 돌아오시길만 해의 선교의 유익한 부분들을 나누고 아울러 일본 단기 선교의 소망을 품는 시간도 가졌다. 수련회 기간 동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30분전 빠집없이 새벽기도를 참석하는 모습, 말없이 더욱 집중된 모습들 등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에바다부를 얼마나 성장시키셨고 이끌어 주셨는지 알 수 있었다.

(이미지통신원)

장년3부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이다

믿음으로 나야와 믿음으로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불수를 쫓아내는 말씀으로 학생들 모두가 은혜의 말씀의 강물에 온몸을 적시는 시간을 가지므로 마음문이 활짝 열렸다. 한반으로 하여진 형제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며 믿음의 형제들의 기도제목을 놓고 서로서로 기도해 주며 어려움에 처한 내 이웃을 감싸안으며 힘있게 깨우는 친교의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오늘을 기해 반갑기리 곤란한 주의 사랑의 줄로 결속되어져 형제적 믿음의 행위가 이어져가리라.

(염미숙 통신)

9교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지난 주일 교구모임에 베드로 남전도회 인원들이 기도원에 올라갔다. 베드로9구의 배가운동을 위하여 먼저 임원들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찬양과 말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6:58경 기도예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쓰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베드로 전도회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주의 품속인 중원교회를 위하여, 위임목사님과 교역자들과 9교구를 위하여 기도제목을 놓고 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9교구에 속한 40대 성도님들이 베드로 전도회에 많이 참여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정국영 통신원)

올림예배

죄의식의 문제

문 영규 (집사, 청년1부 교사)

청년시절, 신앙적으로 종종 심각한 고민에 빠진적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죄의 문제였다. A라는 구체적인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한 후 A라는 죄를 또다시 범하는 나의 모습에서 문득 '회개할 필요가 없어'라는 회개무용론(?)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나는 신앙적인 깊은 절망감에 빠진 것이다. 그러나, 죄를 계속 범하면서 회개할 용기는 갖지 못하고, 쌓여가는 죄책에서 무방비 상태로 버티던 나를 이 고풍스러운 죄의식의 걸림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은 "교만"이라는 단어였다.

"문영규, 너는 십자가가 필요했던 말이나"라는 물음과 함께 단 한번의 회개로 십자가(예수)가 필요했다는 엄청난 교만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사실 우리조상 아담과 하와와 범죄 이후 이 세상은 죄와 불의의 세대로 애기되는데, 즉 종권세상은 사단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우리모두를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길로 가도록 유혹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언제나 사단의 사정권 안에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대에 사는 동안 누구나 평생 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는 바, 그러므로 더욱더 십자가 앞에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그리스도의 능력(마)으로 종국적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탐방

신교현장 영외교육부



중원교회 큰 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아름다운 가지 공동체가 있다. 영외교육부. 이곳은 선교현장이기도 하며 선교를 꿈꾸는 사람들의 꿈이 영글어지는 곳이다. 영외교육부는 지난 1988년 올림예배를 앞두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뜻을 가진 20여명의 성도들이 베다니홀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렀는데, 지금은 매주일 9시에 복지관 지하1층에서 150여명의 지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이 부서는 섬기는 분들로는 조도 윤영대 목사님, 부지도 정준희 목사님, 손길 부장님과 부감 이부성 집사님, 이정순 집사님의 헌신에 힘입어 아주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다.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부서가 함께 이루어져 있으며 각 지체들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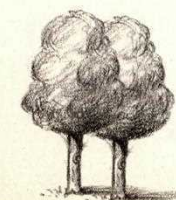
이곳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며

때문에 공동체의식이 함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하여 영외교육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한 달에 한번의 가정 방문, 일년에 한번의 야외예배, 청년을 중심으로 한 새신자 환영회 및 친교회, 주일 예배 후에 시간을 내어 갖는 교제의 시간 등이 있다. 그리고 매년 홀트와 협력하여 입양아들을 초청하여 각 가정에 만년을 유치하여 고국을 알리는 일을 하며 추수감사절에는 외선부와 협력하여 외국인들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하고 이태원, 강남역, 연대 한국어학당에서 학원전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반경 10km 내에 있는 유령 호텔에 담당자를 배치하여 홍보물을 상비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꾸준한 전도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성도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발벗고 나서 기도한다. 지난 IMF때 직업을 잃은 하이디자매는 장로님을 비롯한 영외교육부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충신대에 전임강사로 취업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교사인 윌리엄 출신의 라비나부부는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집사직분을 얻은 성도이다. 그 동안 영외교육부를 거쳐간 성도들은 32개국 200여명이다. 이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꾸준히 편지를 보내와 중원영외교육부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영외교육부의 형명은 자라는 이들에게 선교의 꿈을 심어주는 것이다. 이들이 세계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능통한 습득이 가장 우선되는 조건이다. 그런 의미에서 각 부서에 시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영외교육부의 예배에 참석하고자 할 때 부지간의 협조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선교지향자를 통한 그들의 꿈을 위한 첫걸음을 영외교육부에서 내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영외교육부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그리스도도를 마음대로 모든 각 사람은 누구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오호의 선교현장이며 내일의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련장인 영외교육부에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정영희 기자)

중원 자성교회

(紙上敎會學校)



장소일

▲1교구 홍동민 성도(주1구교) 교통사고로 1년 6개월 입원중입니다. 전신마비로 의식은 있으나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병수발로 어머니(김성희)는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교구 김명옥 전사(역사4구교)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당해 입원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교구 김남주 성도(목사4구교) 직장암으로 3월 7일 수술예정입니다.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8교구 박희순 집사(주3구교) 임파선암으로 한발치로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실

교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생각을 갖기보다는 믿음의 신배들의 생각에 무조건 따르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의 빛깔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신배가 될 수 없다. 나날을 받을 때가 많다. 그래서 다수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생각을 발아래로 내려두고 언제나 모든 것에 순종이 제일이라며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한다. 좋은 점은 순종이 따르고 신배는 미덕으로 묻어주고 기도의 용어들도 들을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심지어는 몸을 흔드는 것도 따른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 필요없다면 왜 주셨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공급하신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을 해야 한다. 자기의 눈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자기의 말로 자기 기쁨의 담백하고 솔직한 기도를 해야 하며 복음을 통한 내면의 힘으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 자기 생각이 없으면 옳고 그름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